



# DMB, 꿈은 이루어진다

한국DMB(주)  
대표이사  
김경선

월 초가 되면 어김없이 접하게 되는 보고서가 있다.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매달 공식 집계한 DMB 단말기 보급 동향 보고서가 그것이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해 12월까지 집계된 지상파DMB 단말기의 누적판매량은 282.6만대이다. 이는 지상파DMB가 첫 전파를 발사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으며, 전국단위 사업이 아닌 수도권단위 사업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어떤 디지털 단말기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속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최근 지상파DMB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방송이 실현되는 2007년에는 지상파DMB의 단말기가 약 1,000만대까지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지상파DMB의 한걸음 한걸음 진일보해가는 모습에서 필자는 희망찬 기대와 함께 처음 DMB 방송 사업에 뜻을 가지고 투신했던 옛일을 떠올려본다. (주)유플을 경영하던 당시 초기 이동통신 시장의 어려움 속에서 통신에 방송 개념을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모바일 방송'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동종 업계 최초로 코스타에 상장했다. 그러나, 나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며, 진정한 '모바일 방송'을 향한 나의 도전은 계속되었다.

진정한 '모바일방송'의 실현! 그것은 다름 아닌 'DMB 방송'이었다. 그래서, 지상파 DMB 방송사업에 과감히 뛰어 들었으나, 주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견기업도 아니고, 방송경험도 전혀 없는 중소벤처기업이 국가가 허가하는 DMB사업권을 획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필자와 직원들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많은 노력과 열정을 불태웠으며, 더 철저한 준비를 했다. 그 결과 2005년 7월 드디어 지상파DMB 방송사업권 획득했으며, 지상파 DMB방송사로서 허가를 받았다.

꿈, 꿈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과 노력이 또 하나의 작은 벤처신화를 이뤘던 것이다.

이제 DMB는 상용화를 넘어 보편화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에 방송을 본다는 것... 이처럼 DMB는 1인 1휴대폰 시대를 뛰어 넘어 1인 1TV 시대의 탄생이며 어린 시절 만화나 SF 영화를 보며 상상 속에 그려왔던 미래가 현실로 이루어진 꿈 같은 일인 것이다.

물론 DMB가 방송으로서 공기(公器)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산업적으로도 의미 있는 매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험난한 산을 넘어야겠지만 꿈을 현실로 만든 열정과 도전정신이 있다면 끝까지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

세계 정부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시골 학교 시절부터 외교관의 꿈을 가슴 속에 품어 오며 차근차근 준비해왔기에 50년이 지난 지금 영광스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닐까? 이것은 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이 너무도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대망의 2007년, 꿈을 품고 사는 벤처인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본다.